부산상공회의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6년 4월 23일(목) 10:00 이후

담 당 : 조사연구팀 박호성 주임
(990-7095)

2026년 2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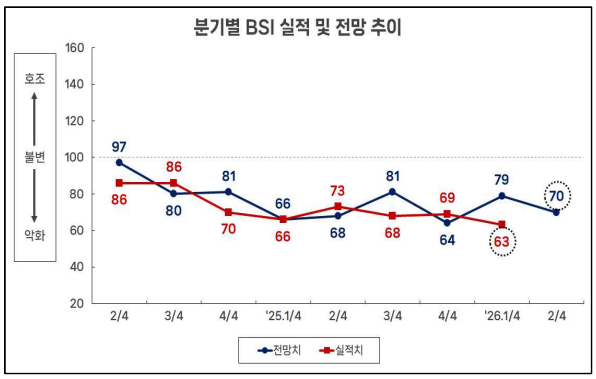
올해 2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하락세 전환

▶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70' … 중동전쟁, 대미 수출관세, 고환율 등의 영향**
▶ **전 업종에서 기준치(100) 하회, 조선·기자재(83), 자동차·부품(83)도 부진 전망**
▶ **상반기 최대 리스크로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43.3%)을 꼽아**

부산지역 제조업의 올해 2분기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 대비 다시 하락하며 지역 기업의 체감경기가 재차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대미 수출 관세 불확실성 확대, 고환율 지속 등 대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이 전분기보다 경영환경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23일(목), 지역 제조업 25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2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를 발표하였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는 기준치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2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0으로 전분기(79) 대비 9p 하락했다. 이는 중동전쟁과 대미 수출 관세 등 지역 기업 차원에선 대응하기 어려운 대외 리스크가 채산성과 향후 경영계획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형태별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이 각각 64, 71로 모두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수출기업은 글로벌 관세정책 변동, 고유가, 해상운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74) 대비 10p 하락했고, 내수기업도 원자재가격 상승과 소비위축 등 중동사태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전분기(80) 대비 9p 하락했다. 아울러 2026년 1분기 경기실적지수도 63으로 전분기(69)보다 6p 낮아져 실제 경영성과 역시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부문별로는 매출(71), 영업이익(69)이 각각 전분기 대비 5p, 6p 하락했다. 관세 불확실성 재점화와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부진 장기화, 해상운임 부담 확대 등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에서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대내외 리스크로 인한 지역 전반의 경영부담이 확인됐다. 특히 전기·전자(64)는 전분기(121)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글로벌 소비위축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기자재(83)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부진 전망이 확대됐으며, 자동차·부품(83)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수익 증가보다 유가·해상운임·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기준치에 미달했다. 반면, 음·식료품(93), 1차금속(72), 화학·고무(70) 등은 상대적으로 등락폭이 작았지만, 역시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구 분	2026년 1분기		2026년 2분기
음·식료품	87	→	93
섬유제품	53	→	57
의복·모피	43	→	50
신발제품	43	→	50
화학·고무	68	→	70
1차금속	64	→	72
조립금속	105	→	63
전기·전자	121	→	64
기계·장비	106	→	80
자동차·부품	90	→	83
조선·기자재	110	→	83

지역기업의 상반기 경영 리스크 요인으로는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43.3%)이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환율 변동성 확대(31.7%), 소비회복 둔화(10.5%), 자금조달 및 유동성 문제(5.0%), 관세 불확실성(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며 기업의 수입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8.1%가 연초 계획과 '변함없음'이라고 답해, 기업들이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기존 투자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자계획이 '축소·지연'(11.9%)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에너지·원자재 등 생산비용 상승'(63.3%)를 가장 많이 꼽아, 중동전쟁과 같은 대외 리스크가 지역기업의 투자심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여줬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팀 관계자는 "지역 제조업은 러우전쟁과 대미 수출 관세에 이어 중동전쟁까지, 연이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체감경기가 크게 위축되었다" 면서,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기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 차원의 자금 지원과 수출입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고 전했다.

첨 부 : 동 조사결과 1부.

2026년 2/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 조사개요 >

1. 조사명

- 2026년 2/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2. 조사목적

-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
-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

3. 조사대상

-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체(※유효 응답 업체 252개체)

4. 조사방법

- 전화 및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5. 조사내용

- 전반적인 체감 경기
- 매출,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
- 주요 업종별 전망

6. 주의사항

-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7. 기업경기전망지수(BSI)의 의미

$$BSI = \frac{\text{호전(증가)표시업체수} - \text{악화(감소)표시업체수}}{\text{총유효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

1 2026년 2/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70'로 전분기(79) 대비 9p 하락. 이는 고환율, 중동 전쟁 등 대외환경 영향으로 지역 제조업은 체감경기 악화 전망**

❍ 2026년 2/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70'

- 중동전쟁, 대미수출 관세 등 금번 대외 리스크는 기업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 요인들로, 지역기업의 채산성 및 향후 경영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기업이 체감하는 경기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대미수출 관세 및 중동전쟁의 장기화 우려로 지역기업의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2분기 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기준치(100)를 하회

❍ 형태별 BSI는 [1]수출기업 '64', [2]내수기업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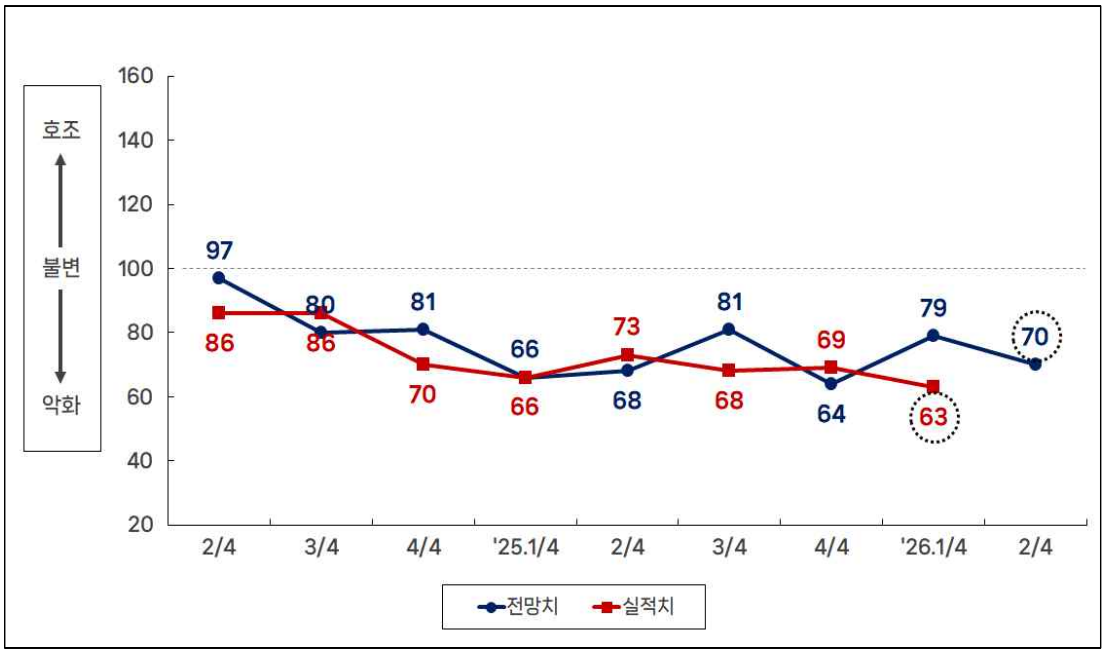
- 수출기업은 글로벌 관세정책 변동, 고유가,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전분기(74) 대비 10p 하락
- 내수기업 또한 원자재가격 상승, 소비위축 등 중동전쟁의 직·간접영향으로 인해 전분기(80) 대비 9p 하락

❍ 2026년 1/4분기 제조업 경기실적지수 '63'

- 대외 리스크 요인 확산, 대미 수출 관세 장기화, 소비위축 지속 등으로 경기실적지수는 전분기(69) 대비 6p 하락

1)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2)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미만을 차지하는 기업

<최근 2년간 분기별 BSI 실적 및 전망 추이>



❍ 2026년 2/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응답 분포

- 전분기와 경기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 제조업체가 130개사(51.6%)로 최다
- 반면, 2/4분기 경기부진 전망 업체는 99개사(39.3%)로 경기호전 전망 업체(23개사, 9.1%)를 크게 상회

< 2026년 2/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응답 분포 >

(단위: 개사, %)

구분	호전	불변	악화	계
응답업체 수	23	130	99	252
구성비	9.1	51.6	39.3	100.0

2 경영 부문별 전망

■ **중동사태로 인한 물가상승 및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2026년 2/4분기 지역 제조업 매출(71) 및 영업이익(69)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각각 5p, 6p 하락**

❍ 매출(71), 영업이익(69)

- 관세 불확실성 재점화, 유가·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부진 전망
- 또한, 소비부진 장기화와 해상운임 부담 확대로 2분기 매출·영업이익 지수도 하락

❍ 설비투자(68), 자금사정(69)

- 설비투자와 자금사정은 소비위축 지속과 고환율로 인한 투자비용 부담 증가,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해 전분기 수준 지속

< 부문별 BSI 변화 >

구분	실적			전망		
	'25.4/4분기		'26.1/4분기	'25.1/4분기		'26.2/4분기
체감경기	69	→	63	79	→	70
매출액	67	→	63	76	→	71
영업이익	65	→	63	75	→	69
설비투자	72	→	63	69	→	68
자금사정	60	→	63	72	→	69

3 주요 업종별 전망

■ 중동전쟁과 불확실한 미국 수출관세, 환율 변동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전 업종에서 기준치(100)를 하회

❍ 전기 · 전자(64)

- 전기 · 전자 제조업은 글로벌 소비위축, 원자재가격 및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전분기(121) 대비 큰 폭 하락하며 2분기 경기 악화 전망

❍ 조선 · 기자재(83)

- 전분기(110) 韓-美 조선산업 협력 체결로 지역 조선 · 기자재업 또한 낙수효과를 기대하였으나,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지역 조선 · 기자재업도 경기 부진 전망 증가

❍ 자동차 · 부품(83)

-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 수익증가 대비 해상운임 및 유가 상승, 원자재가격 증가 등의 비용증가 폭이 더 확대되며 기업 부담 확대되어 경기전망지수는 기준치(100) 하회

- 반면, 르노코리아의 3월 신차 출시로 인해 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업황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며 경기전망지수 하락폭 제한

< 주요 업종별 BSI 변화 >

구분	실적			전망		
	'25.4/4분기		'26.1/4분기	'26.1/4분기		'26.2/4분기
음 · 식료품	80	→	80	87	→	93
섬유제품	40	→	30	53	→	57
의복 · 모피	50	→	42	43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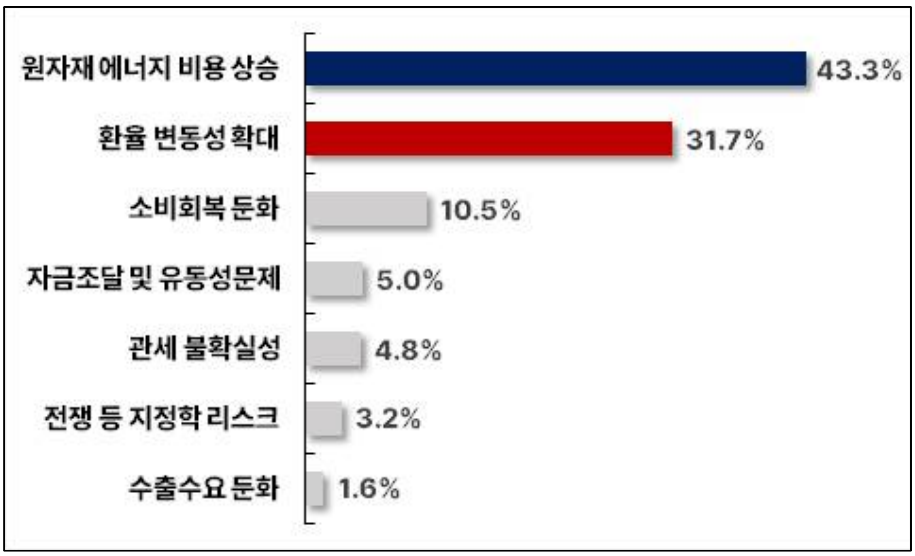
구분	실적			전망		
	‘25.4/4분기		‘26.1/4분기	‘26.1/4분기		‘26.2/4분기
신발제품	55	→	50	43	→	50
화학·고무	76	→	74	68	→	70
1차금속	48	→	52	64	→	72
조립금속	55	→	54	105	→	63
전기·전자	121	→	55	121	→	64
기계·장비	94	→	77	106	→	80
자동차·부품	70	→	93	90	→	83
조선·기자재	97	→	77	110	→	83

4 상반기 경영 리스크 요인 및 투자동향

❍ 상반기 지역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로는 '원자재 · 에너지 비용 상승(43.3%)'

- 원유 · 알루미늄 등의 에너지 · 원자재가격이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역기업 경영실적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
- 이어 '환율 변동성 확대'(31.7%), '소비회복 둔화'(10.5%), '자금조달 및 유동성 문제'(5.0%), '관세 불확실성'(4.8%),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3.2%), '수출수요 둔화'(1.6%) 등의 순
- 특히, [3]환율은 원/달러 환율 기준 1,500원 수준을 뛰어넘어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하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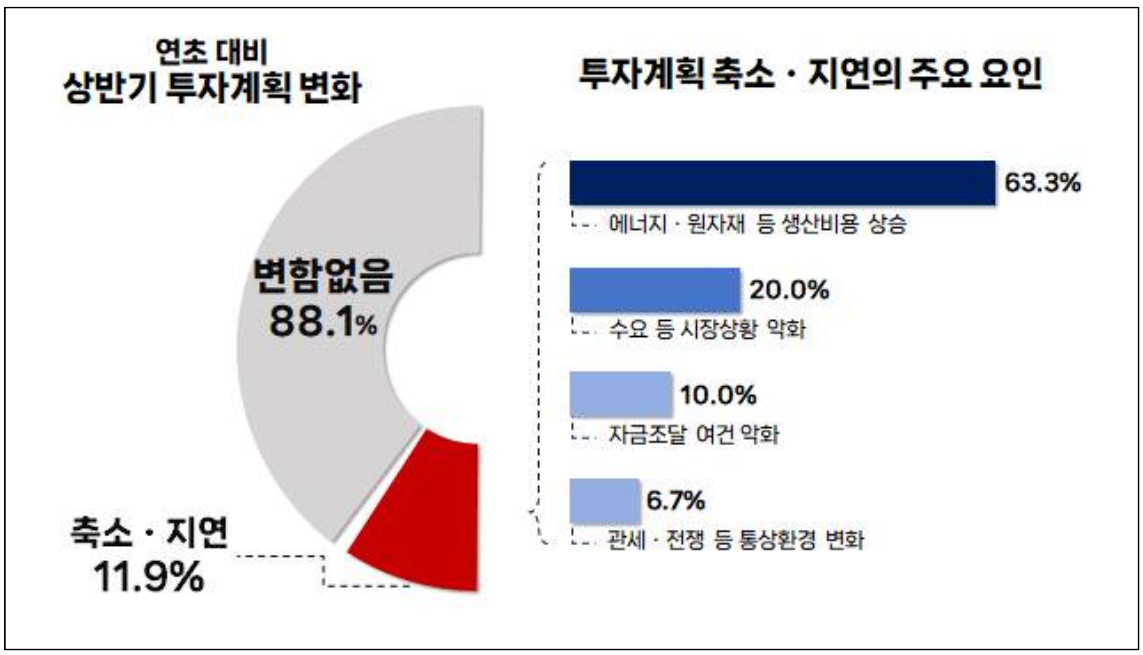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부산기업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



❍ 지역기업 88.1%는 '상반기 투자계획 변함없음'

- 연초 계획한 투자계획에 대해선 '변함없음'(88.1%), '연초계획 대비 축소 · 지연'(11.9%) 인 것으로 나타남

3) 원/달러 환율 종가기준(3/19), 한국은행 참조

- 투자계획 '축소·지연'의 이유로는 '에너지·원자재 등 생산비용 상승'(63.3%), '수요 등 시장상황 악화'(20.0%), '자금조달 여건 악화'(10.0%),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 변화'(6.7%) 등의 순
- 지역기업의 상반기 투자계획은 연초 대비 대체로 변함없으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과 시장수요 감소를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상반기 투자계획 변화 및 투자계획 축소·지연 요인〉